

T_M_013

금덕본향 검은댁잇당(유수암)

이 당은 이 무실을
체암 설촌훈 홍좌수가
설립하였수다.
홍좌수가 두린 때로부떠
원체 우김이 씨고
걸죽훈 양반이랐는디
장성호여서는 지주목수광도
우김을 곁이 훈
어룬이랐수다.
홍좌수가 흐르 밤인
꿈을 보았는디.
백발노인이 나타나서
“나는 이 무실을 지키는
송씨영감인디
내 좌정처를 정호영
위호염시민
알을 도리가 실거라.”
흐여 두언
어디로산디 가불었수다.
글지후제 홍좌수가
무실에 모둠을 흐고
이 수실을 알려
당집을 무언 송씨영감을
위호게 되었수다.
홍좌수가 잘 살아가난
해밴 사름들이
홍좌술 엇이대기기로
꾀를 내는 판이랐는디.

그 날 밤 홍좌수 꿈에
백발노인 송씨영감이
나타나고 말을 헌되.
“아무날 아무시로
수고전맹이 매길 거매
아맹아맹 헌민
알을 도리가 실거라.” 헌연,
늙는날은 홍좌수가
제주목수안티 간 말을 헌고
수령 예실곱을 빌언 간
예방을 헌난
그만 수경을 멘헌게 되였수다.
홍좌수는 무실 토주관으로 신
송씨영감의 은덕을 맹심헌연
본향을 잘 위헌고
무실에서도 주손들이 불어났수다.
이 본향에 강 제를
지낼 땐 홍좌수도
거늘리곡 흡네다.

제일, 주손에 생기 맞은 날.

<애월면 신엄리 남무 42세 양태옥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.606.